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의회, 금융산업 겸업규제법안 제출

□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몇몇 상,하원 의원들은 금융산업간 겸업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.

- o 미국은 1930년대, 대형은행이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Glass-Steagall 법안이 발효되면서 금융업권간 겸업이 금지되어 왔으나 탈규제화가 최고점에 달했던 1999년 동 법안이 폐지되면서 현재와 같은 겸업구조를 갖추게 됨.
- o 법안을 제출한 전 공화당 대선 후보 McCain 상원의원은 월 스트리트의 손실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.
- o McCain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금융위기의 핵심이었던 대형 금융사들이 투자부문과 보험부문을 분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,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도 제출됨.

□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탈규제화가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, 반대하는 측은 과거와 같은 규제도 현재의 금융위기를 방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금융규제 강화 시 고용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함.

- o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탈규제화가 일련의 금융위기를 유발해왔으며, 특히 1999년 Glass-Steagall 법안의 폐지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함.
- o 투자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Glass-Steagall 법안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인기에 영합한 발상이며, 뉴욕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또한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이 민간기업에 개입하는 것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도 의문이라고 밝힘.
- o 그러나 한 민주당의원은 Glass-Steagall 법안의 경우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던 대공황 때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최근 제출된 법안이 Glass-Steagall 법안의 부활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.

(Insurance Journal, 12/17)